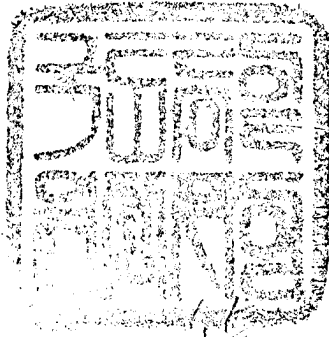


2438
363.11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張 錫 澗
(統一研修所 教授)



권선동상.
보통비밀안회
북한시회건재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目 次

1. 序 論	3
2. 政 黨	4
가. 朝鮮勞動黨	6
나. 友黨政策과 그 實態	19
3. 社會團體	24
가. 勤勞大衆團體	26
나. 統一推進前衛團體	37
다. 文化·藝體能團體	43
라. 宗教團體	47
마. 學術團體	50
바. 國際宣傳團體	52
4. 結 論	53

1. 序 論

北韓은 80年代에 들어서자 두 차례나 「南北韓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를 開催하자고 提議해 왔다.

1981年 8月 6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第67次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朝鮮勞動黨을 비롯한 22個의 政黨·社會團體의 名義로 聯合聲明을 통하여 「民族統一促進大會」를 召集하고 「高麗聯邦制案」에 대한 論議를 하자고 提議했으며, 1983年 1月 18日 朝鮮勞動黨을 비롯한 20個 政黨·社會團體의 聯合聲明을 발표하여 「駐韓美軍撤收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南北韓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를 開催하자고 또다시 提議해 왔다.

그러나 北韓에서 政黨政治가 實現되고 自律적으로 組織된 社會團體들이 壓力團體의 性格을 가지고 活動할 수 있는 結社의 自由가 保障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모든 社會團體나 大衆組織은 한결같이 勞動黨의 綱領과 規約에 근거하여 組織되고 黨의 指導와 統制를 받아야 하며 核心黨員이 그 幹部職을 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에는 勞動黨과 맞설 어떠한 公黨도 存在할 수 없으며 있다면 오직 그 밑에 隸屬되는 이른바 「友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共產集團은 대외적으로는 1黨獨裁 아닌 複數政黨制를 採擇하고 있는 것처럼 僞裝하기 위하여 「朝鮮社會民主黨」이니 「朝鮮天道教靑友黨」이니 하는 허수아비黨을 내세우

고 있다.

또한 社會團體들도 「黨과 大衆을 연결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충실한 補助者이다」라고 하여 住民을 監視 統制하고 金日成 主體思想 教養事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利用하거나 反韓·反美 宣傳活動과 勞力動員의 효과적인 機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組織된 勞動黨의 外廓團體, 前衛團體에 불과하다.

본 敎재에서는 이와 같은 政黨과 社會團體를 各己 區分하여 그 現況을 살펴 보았으며 특히 各種 社會團體들은 현의상 性格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살펴 보았다.

2. 政 黨

E. Burke 에 의하면 「政黨이란, 主義와 政見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主義와 政見에 의거한 共同의 努力으로서 公共의 利益을 增進하고자 결합한 團體이다」¹⁾ 라고 定義하고 있다.

政黨이란, 반드시 議會制度를 前提로 하며 院內에서 多數議席을 차지하거나 行政府의 首班을 自黨에서 선출케 함으로써 政權을 장악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政黨은 많은 支持大衆을 확보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權接近方法은 반드시 民主的이며 合憲的이어야 한다.

政黨의 存立要件으로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充足되

註1) 政治學辭典, 博英社, 1980, p.1302.

어야 한다.

- ① 政黨은 自律的인 政治團體이니 만큼 政治活動에 대한 상당한 自由가 전제되어야 한다.
- ② 政黨은 複數黨의 存立밑에서 平和的인 政權交替를 위한 努力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政黨은 公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朋黨처럼 私利私慾의 추구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政黨이 아니라 徒黨으로 轉落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政黨의 定義나 存立要件으로 보아서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朝鮮勞動黨」이니 「朝鮮社會民主黨」 또는 「朝鮮天道教靑友黨」이란 것은 政黨이라고 할 수 없으며 「朝鮮勞動黨」 1黨獨裁의 주위에 둘러리처럼 에워싸고 있는 「友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에는 野黨의 存立이 許容되지 않으며 勞動黨 이외의 政黨이란 그 存立價値까지 否認되고 있다.

北韓은 黨에 대한 定義를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獨裁體制 아래서 黨은 최고의 組織形態로서 革命의 參謀部이며 嚮導的, 領導的 力量이다」라고 하여 「國家機關이나 勤勞團體 등과 같은 各種 政治組織은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고 大衆을 黨과 首領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引傳帶이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집행하는 武器」²⁾라고 한다.

註2) 「프롤레타리아獨裁國家 建設에 관한 金日成의 思想」,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120~130.

이와 같이 「首領이 黨과 프롤레타리아國家를 創建하고 指導한다」는 1人支配體制를 制度化하고 있는 北韓에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政黨이란 그 자체가 存立할 수 없는 것이다.

가. 朝鮮勞動黨

(1) 沿革

北韓은 「朝鮮勞動黨」의 創建日을 1945年 10月 10日로 公式化하고 있다.³⁾ 즉, 1945年 10月 10日~13日 「朝鮮共產黨 西北5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서 채택된 “政治路線과 組織強化에 대한 決定書”에 따라 創設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 「朝鮮勞動黨」의 母胎가 되었다.⁴⁾

그후 1945年 12月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北朝鮮共產黨」으로 名稱을 바꾸었고 1946年 8月 30日 「朝鮮新民黨」과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하였다가 1949年 6月 30日 1國1黨原則에 따라 「朝鮮勞動黨」으로 統合하게 되었다.<表1 참조>

(2) 指導理念과 目標

1980年 10月 第6次 黨大會에서 밝힌 黨의 指導理念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없이 오직 「金日成 主體思想·革命思想만이 黨의 理念이다」라고 하였다.

金日成은 「우리 黨 안에는 主體思想 밖에 그 어떤 다른 思

註3) 조선통사(하), 평양, 1957, p.16.

4)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 p.751.

<表 1 >

勞動黨의 生成과 展開過程

年 月 日	生 成 過 程	性 格	備 考
1945.10. 5	創 黨 準 備		北韓地域 各地區黨代表 豫備會談
1945.10.10 ~ 10.13	北 朝 鮮 分 局 創 黨		朝鮮共產黨 西北5道責 任者 및 熱誠者大會
1945.10.23	北 朝 鮮 分 局 認 定	分局	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
1946. 8.28 ~ 8.30	北 朝 鮮 勞 動 黨 1 次 大 會	合黨	朝鮮新民黨과 合黨으로 黨名稱變更
1948. 3.27 ~ 3.30	北 朝 鮮 勞 動 黨 2 次 大 會		
1948. 8.	南 北 勞 動 黨 聯 合 中 央 委 構 成		南北勞動黨 合黨을 위 한 過渡的 措置
1949. 6.30	朝鮮勞動黨(單一黨)	統合	正式으로 合黨, 金日成 이 委員長이 됨
1956. 4.23 ~ 4.29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61. 9.11 ~ 9.18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70.11. 2 ~ 11.13	朝鮮勞動黨 5次大會		
1980.10.10 ~ 10.14	朝鮮勞動黨 6次大會		

想도 발붙일 틈이 없으며, 그 어떤 힘도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이
룩된 우리 黨의 統一과 團結을 절대로 허물 수 없다」라고 함
으로써 勞動黨의 指導理念은 主體思想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
다.

勞動黨의 指導理念과 目標의 變化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2次 黨大會때에 黨規約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明文化하지는 않았으나 1956年 第3次 黨大會에서 規約을 개정하면서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가 黨의 基本理念임을 분명히 하였다.
(勞動黨規約 第1章)

그리고 1961年 9월에 개최된 第4次 黨大會에서는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導的 指針으로 삼으며 ……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一般적 原理를 朝鮮革命的 實踐活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理念에 관한 變質을 示唆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마르크스·레닌主義가 黨의 公式的인 指導理念이었으나 50年代부터 學論되기 시작한 主體의 문제가 60年代를 거쳐 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主體思想으로 그 내용이 理論化·綜合化되기에 이르렀다.

즉, 1970年 11월에 개최된 第5次 黨大會에서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金日成同志의 위대한 主體思想을 자기 활동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金日成 主體思想을 黨理念으로 公式化하였으며 1972年 12月 27日에 採擇한 社會主義憲法에서는 單一指導理念으로 主體思想을 내세웠다.

특히 第6次 黨大會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없이 오직 主體思想만을 내세웠으며 革命傳統까지 「主體의 革命傳統」이라고 주장하게 된 과정을 요약해 보면 <表2>와 같다.

<表 2 >

勞 動 黨 的 指 導 理 念 變 化 過 程

時 期	理 念	傳 統	備 考
第 1 次 黨 大 會 (1946. 8.28 ~ 8.30)	마르크스· 레닌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規約에는 公式적으로 理 念이 明文化되지 않았음 ○ 여러 파벌로 組織化되었 으므로 어느 하나를 傳 統으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임
第 2 次 黨 大 會 (1948. 3.27 ~ 3.30)	마르크스· 레닌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大會決定書 第 4 項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 에 대해 언급
第 3 次 黨 大 會 (1956. 4.23 ~ 4.29)	마르크스· 레닌主義	朝鮮人民의 革命傳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初로 黨規約에 理念과 傳統에 대해 明文化
第 4 次 黨 大 會 (1961. 9.11 ~ 9.18)	마르크스· 레닌主義+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創造的適用	抗日武裝闘 爭의 革命 傳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抗日武裝闘爭을 黨의 傳統으로 한 것은 金日成의 확고한 指導體 制의 確立을 意味한 것 임
第 5 次 黨 大 會 (1970.11. 2 ~ 11.13)	마르크스· 레닌主義+ 金日成主體 思想	抗日武裝闘 爭의 革命 傳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 年부터 거론된 主體 思想의 問題가 1960 年 代되어 定型化됨 ○ 1972 年 社會主義憲法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單 一指導理念으로 絶對化
第 6 次 黨 大 會 (1980.10.10 ~ 10.14)	金日成主體 思想	主體思想· 革命傳統 (抗日武裝 闘爭)	

※ 出處：閔丙天, 北韓共產主義, 大旺社, 1983, p.128.

勞動黨의 目標은 理念의 變化와 같이 時期에 따라 變化해 왔다.

1980年 第6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黨의 目標에 대하여 「갈라진 祖國을 통일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나아가 온 사회를 主體思想化하는 것이 歷史的 偉業이다」라고 하였다.

勞動黨의 最終目標가 共產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規約에 規定한 것은 第3次 黨大會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전국적 범위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의 課業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1961年 9月 第4次 黨大會에서는 規約 前文에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的 革命課業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하여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에 앞서 社會主義制度 確立을 當面課業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目標의 變化過程을 요약해 보면 <表3>과 같다.

(3) 勞動黨의 性格

勞動黨은 大衆을 基盤으로 하여 執權을 위해 鬭爭하는 政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支配하는 黨」 내지 「執權을 위한 黨」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執權을 위한 鬭爭의 實績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로부터의 共產主義를 실현하는 黨」이라는 특

<表 3 >

勞動黨의 目標變化過程

時 期	當 面 目 標		最 終 目 標
	對 內	全 國 的	
第 1 次黨大會 (1946. 8.28 ~ 8.30)	統一政府의 樹立		
第 2 次黨大會 (1948. 3.27 ~ 3.30)	共產政權의 樹立	統一政府의 樹立, 勤勞大衆의 政治·經濟文化生活水準의 向上	
第 3 次黨大會 (1956. 4.23 ~ 4.29)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 完遂	共產主義社會建設
第 4 次黨大會 (1961. 9.11 ~ 9.18)	社會主義制度의 完全勝利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的 革命遂行	共產主義社會建設
第 5 次黨大會 (1970.11. 2 ~ 11.13)	社會主義制度의 完全勝利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 達成	共產主義社會建設
第 6 次黨大會 (1980.10.10 ~ 10.14)	社會主義制度의 完全勝利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課業 完遂	全社會의 主體思想化 共產主義社會建設

※ 出處：閔丙天，前掲書，p.130.

수한 性格을 가진다.⁵⁾

共產黨에 있어서 聖書와 같은 것이 黨의 綱領과 規約이다. 그러므로 第6次 黨大會에서 개정된 規約 前文에 나타난 黨의 性格을 살펴 보면 첫째, 勞動黨은 金日成이가 創建한 「主體型的 革命的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이라고 從前의 規約 前文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새로 만들었고 둘째, 勞動黨 活動의 基本原則을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이라고 強調하였고 셋째, 勞動黨의 當面目的을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내세움으로써 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思想的 支柱로 삼는 共產黨이라기보다 「金日成主義」를 政治理念으로 하는 私黨으로 轉落시켜 세계 어느 共產國家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黨은 모든 國家機關의 任무를 調整하고 指導하며 모든 職位를 獨占하여 權力構造의 核으로 君臨하고 있다. 憲法上으로는 最高人民會議(立法府), 政務院(行政府), 中央裁判所(司法府)로 나누어 형식상 三權分立制와 類似的 體制를 가지고 있지만 勞動黨이 모든 憲法機關 위에 존재하는 超憲法的 機關으로 되어 있다.

(4) 黨 勢

黨員數에 대하여는 1964年 第4次 黨大會에서 發表된 이래 현재까지 公式的인 발표가 없으므로 精確한 수는 알 수 없으나 第

註5) 閔丙天, 前揭書, p.113.

6次 黨大會 이후 300萬名 이상으로 推定된다.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時期에는 4,530名을 가진 前衛組織으로 출발하였으나 「朝鮮新民黨」과의 合黨을 계기로 급속히 增加됨으로써 大衆的 政黨化를 꾀하였다. 즉, 1946年 8月 28日 「北朝鮮勞動黨」이 發足할 당시는 黨員이 36萬6,000名이 되었다.

그후, 1948年 3월에 第2次 黨大會를 開催할 때는 72萬5,762名⁶⁾으로 增加되었다.

1950年 12月 1日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3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戰爭過程에서 나타난 黨內的 결함을 지적하고 黨의 規律을 강화하는 措置로 약 45萬名을 責罰함으로써 黨員數는 현저히 줄어 들었으나, 1951年 11月 「同 第4次 全員會議」에서 新規黨員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決定한 후, 黨員數는 約 100萬名으로 急增하게 되었으며 1956年 第3次 黨大會때는 116萬4,945名에 達하게 되었다. 이들 黨員中 51.7%가 新入黨員으로서 新·舊黨員의 比率은 5 : 5의 현상을 나타냈다.

1961年 第4次 黨大會時에는 131萬1,563名으로 增加하였고, 1978年에는 約 200萬名으로 增加하였으며, 1980年 第6次 黨大會時에는 306萬2,000名으로 增加했다. 이는 第5次 黨大會時보다 約 100萬名이 增加된 것으로 이러한 增加要因은 金正日을 支持하는 勢力들이 대거 입당한 것으로 推測된다.<表 4 >

註 6) 金日成은 第3次 黨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事業決算報告」를 통하여 72萬5,762名이라고 發表하였다.

<表 4 >

勞動黨員의 增加趨勢

時 期	黨 員 數	黨細胞數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3次擴大執行委員會 (1945.12)	4,530	
北朝鮮勞動黨 1次大會(1946. 8)	366,000	12,000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1948. 3)	725,762	28,000
朝鮮勞動黨 中央委 5次全員會議 (1952.12)	1,000,000	48,933
朝鮮勞動黨 3次大會(1956. 4)	1,164,945	58,259
朝鮮勞動黨 4次大會(1961. 9)	1,311,563	65,000
朝鮮勞動黨 創建 20 周年(1965.10) ①	1,600,000	
朝鮮勞動黨 創建 25 周年(1970.10) ②	1,600,000	
1972. 8 ③	2,000,000	
1978. 1 ④	2,000,000	
1980. ⑤	3,062,000	

※出處：各黨大會 中央委 事業報告, 金日成 演說 및 <조선중앙년감>을 근거로 작성.

註：① 로동신문(1965.10.10일자) ② 로동신문(1970.10.10일자)

③ 로동신문(1972. 8.29일자) ④ 로동신문(1978. 1.29일자)

⑤ 國土統一院, 「北傀勞動黨 및 外廓團體現況」, 1981, p.4.

(5) 組 織

(가) 中央組織

1) 黨大會

勞動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이다. 그리고 黨大會는 5年에 1回씩 黨中央委員會가 召集하도록 되어 있다.⁷⁾

勞動黨 規約 第22條에 명시된 黨大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①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總和
- ② 黨綱領과 規約의 採擇 또는 修正補充
- ③ 黨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에 관한 基本問題의 決定
- ④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 選舉 등이다.

그러나 黨大會에서는 以上과 같은 內容을 黨中央委員會 및 政治委員會에서 미리 決定되어 내려오면, 그 決定事項에 대하여 滿場一致로 可決만 하는 機能밖에 없다.

다음으로 勞動黨의 最高指導機關이라는 黨大會 開催現況을 살펴 보면 <表5>와 같다.

2) 中央委員會

中央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直屬으로 政治·經濟·軍事機關에 政治局을 組織하며, 이 政治局들은 해당기관에 組織된 黨委員會의 執行部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中央委員會는 正委員 142名과 候補委員 10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註 7) 必要에 따라 黨大會를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黨規約 第21條)

<表 5 >

黨大會 開催現況

黨大會	開催日字	代表數	代表構成	備考
北朝鮮勞動黨 第 1 次大會	1946. 8. 28 ~ 30	801 名		
北朝鮮勞動黨 第 2 次大會	1948. 3. 27 ~ 30	999 名 (이중 9 名 不參)	勞動者: 466 農 民: 270 事務員: 234 其 他: 29	發言權만 갖 는 代表 96 名
朝鮮勞動黨 第 3 次大會	1956. 4. 23 ~ 29	916 名 (이중 2 名 不參)	勞動者: 439 農 民: 192 事務員: 246 其 他: 39	
朝鮮勞動黨 第 4 次大會	1961. 9. 11 ~ 18	1,657 名 (이중 3 名 不參)	勞動者: 944 農 民: 451 事務員: 191 其 他: 71	
朝鮮勞動黨 第 5 次大會	1970. 11. 2 ~ 13	1,734 名		發言權만 갖 는 代表 137 名
朝鮮勞動黨 第 6 次大會	1980. 10. 10 ~ 14	3,220 名		

※ 出處: <조선중앙년감>을 根據로 作成

북한개요 (국토통일원, 1981), p.29 를 참조하여 筆者가
보충하였음.

中央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① 全黨에 唯一思想體系의 確立
- ② 黨의 路線과 政策樹立 및 그 실행을 組織, 指導
- ③ 黨과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 調整
- ④ 革命的 武力을 組織, 그들의 戰鬥力을 높이고,
- ⑤ 政黨 및 國內外 機關의 活動에서 黨을 代表하고,
- ⑥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3) 黨 細胞

黨의 基層組織은 黨員生活의 거점, 黨의 戰鬥單位로 定義되는 黨細胞이다. 黨細胞는 黨員 5~30名 단위로 組織된다. 黨員 5名미만의 단위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인접 黨細胞에 소속시키거나 2個이상 단위의 黨員을 합병하여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또한 黨員 31名 이상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黨 組織을 둔다. 初級黨과 黨細胞의 組織만으로 黨基層 組織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生産單位나 기타 活動單位에 分初級黨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 政 治 局⁸⁾

政治局은 黨의 모든 政策을 樹立하는 最高核心機關이다. 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사실상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指導하고 있다.

政治局은 19名의 正委員과 16名의 候補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5名으로 構成된 常務委員會가 實權을 行使하고 있는

註 8) 1980.10. 第 6次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를 「政治局」으로 改稱하였다.

데 그 構成員은 金日成, 金正日, 金一, 吳振宇, 李鍾玉 등 5名이다. (最近에 李鍾玉은 물러났고 副主席으로 선임되었다)

5) 秘書局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當面問題 등을 정기적으로 討議決定하고 그 執行을 組織·指導하는 黨의 中樞機關이다.

현재 金日成이가 總秘書를 맡고 있으며 그 밑에 11名으로 構成된 各 分野別 秘書⁹⁾가 있다.

6) 軍事委員會

軍事委員會는 「朝鮮人民軍」의 各급 部隊에 設置된 軍事部門의 最高機構(黨政策議決機構)로서 黨의 軍事政策을 討議決定하고 軍需産業과 軍事力 強化를 위한 事業을 맡고 있다.

7) 檢閱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行爲, 黨의 紀律을 違反하는 行爲와 下級黨委員會의 提訴와 黨의 告訴를 審議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委員長은 徐哲이가 맡고 있고 副委員長은 康賢洙外 2名이 맡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4名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8) 中央檢査委員會

中央檢査委員會는 黨大會에서 選舉하여 構成되며 黨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金日成을 비롯한 黨高位層은 물론 中央黨이 執行한 經理에 있어서

註9) ① 金正日(黨事業全般), ② 金仲麟(對南), ③ 金永南(國際), ④ 延亨默(經濟), ⑤ 金渙(科學·教育), ⑥ 玄武光(重工業), ⑦ 安承鶴(輕工業), ⑧ 黃壯燁(思想), ⑨ 徐寬熙(農業), ⑩ 許貞淑(勤勞團體), ⑪ 蔡喜正(計劃財政)

不正을 밝혀낸 일은 한번도 없었으며, 또한 밝혀낼 수도 없다. 다만 형식적인 機能으로 일관하다가 黨大會에서 報告만 하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委員長은 李樂彬이가 맡고 있고 14名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나) 地方組織

道(直轄市)黨과 市(區域)·郡黨 등 各級 地方黨의 組織體系¹⁰⁾는 黨中央機關의 組織原則에 準하고 있다.

地方黨 代表會議는 3年마다 召集키로 되어 있으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地方黨 代表會議에서는 該當地方黨委員會와 檢査委員會의 委員, 上級黨會議에 對견할 代表를 選출하고 檢査委員會 事業을 總括한다.

各 地方黨委員會는 常務委員과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출하고 秘書處,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組織한다.

地方黨委員會의 任務는 黨員들에게 黨事業을 부여하고 指導하는 일과 課業遂行에 대한 檢閱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黨의 紀律을 違反한 자에 대한 處罰을 決定하는 일이다.

나. 友黨政策과 그 實態

北韓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 第53條에는 「民主主義的 政黨·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註 10)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黨委員會, 市(區域)·郡黨委員會, 初級黨委員會, 黨細胞 등이 있다.

러나 이러한 規定은 한낱 걸치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 신봉자들은 共產主義 以外の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共存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는 共產黨의 1黨獨裁로서 프롤레타리아트 以外の 모든 階級은 투쟁의 대상이며 타도해야 할 目標로 제시된다.

그러나 北韓에도 마치 複數政黨制度가 있고 社會團體의 自由活動이 保障되고 있는 것처럼 僞裝하고자 欺瞞術策을 펴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共產集團이 내세우는 「友黨政策」이란 自由民主主義의 政黨制度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보면 北韓共產集團이 友黨이라고 내세운 「朝鮮民主黨」의 黨首였던 崔庸健은 그 당시 「朝鮮勞動黨」의 副委員長¹¹⁾을 兼하고 있음으로써 勞動黨의 시너로 만들었던 例가 있었고 이른바 友黨이라는 「朝鮮民主黨」과 「朝鮮天道教靑友黨」의 綱領과 規約들은 「朝鮮勞動黨」의 綱領과 規約를 그대로 美化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勞動黨과 行動統一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그 例라 하겠다.

(1) 朝鮮社會民主黨

1945年 11月 3日 平壤에서 「朝鮮民主黨」이 創黨되었다.

당시 古堂 曹晩植先生에 의하여 創黨된 「朝鮮民主黨」은 自意的인 것이 아니라 소련 軍政의 중용에 의하여 부득이 創黨한 것이었다. 소련 軍政當局의 의도는 形式的이나마 複數政黨制度를 만

註 11) 1956.4. 崔庸健이는 「朝鮮民主黨」의 黨首로서 勞動黨 副委員長職을 兼하게 되었다.

들어 民主政治를 실시하는 것처럼 世界各國에 宣傳하고자 하는 目的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1945年 10月 14日 金日成은 曹晩植先生에게 政黨組織을 提議하게 되었다. 당시의 蘇聯軍의 蠻行으로 혼란해진 民心을 曹晩植先生을 지지하는 大衆의 心理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安定勢力을 구축해보려는 속셈으로 金日成은 스스로 副黨首로 되어서 對蘇關係를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創黨前夜에 金日成은 자기가 蘇聯軍政의 배후에서 조정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朝鮮民主黨과 共產黨을 적절히 調整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자기를 대신하여 崔庸健과 金策(一名: 金在民)을 曹晩植先生에게 추천했다. 그리하여 崔庸健이 副黨首가 되고 金策은 黨書記長과 政治部長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후 曹晩植先生은 反託運動과 관련하여, 黨首를 辭任하자, 그 後任으로 崔庸健이 黨首가 되었고, 결국 朝鮮民主黨을 완전히 朝鮮勞動黨에 隸屬시킨 결과가 되었다.

崔庸健이 朝鮮民主黨의 黨首가 되자 黨의 高位幹部 李允榮, 韓根祖, 金炳淵, 李宗鉉, 白南弘 등이, 38線을 넘어 越南하여 1946年 1월에 黨의 본거지를 서울로 移轉했음을 발표하고 活動을 개시하였다.

1948年 3月에는 朝鮮民主黨은 第3次 全黨大會를 열고 朝鮮勞動黨의 綱領과 비슷하게 綱領을 改正하였다.

그리고 1956年 4月 朝鮮勞動黨 第3次 大會에서 朝鮮民主黨의

黨首인 崔庸健을 勞動黨의 副委員長職에 앉힘으로써 완전히 隸屬시켜 버렸다.

1958年부터 地方組織을 解體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는 道黨組織까지 완전히 解體해 버렸다. 결국 下部組織을 모두 없애버리고 上部組織만 남게 됨으로써,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름뿐인 黨으로 轉落하게 되었다.

그후 1980年에 開催된 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는 갑자기 黨名을 「朝鮮社會民主黨」으로 改稱하게 되었는데, 그 原因과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年 2月, 당시의 프랑스 社會黨 黨首인 미테랑이 北京을 거쳐 平壤을 訪問하게 되어 있었고, 日本의 社會黨 委員長인 아스까다·이찌오(飛鳥田一雄)는 같은 時期에 平壤을 訪問하게 된 것을 機會로 포착하여 各國의 社會黨들과 유대를 強化해 보려는 속셈으로 갑자기 黨名을 바꾼 것으로 判斷된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이었던 康良煜의 死亡 이후는 副委員長인 金成律, 金碩俊, 金台涉, 염국렬 등이 黨務를 맡고 있으나 미테랑과의 會談과 아스까다·이찌오와의 會談席上에 염국렬이가 參席한 것으로 보아 염국렬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朝鮮天道教靑友黨

天道教靑友黨은 본래 天道教徒들에 의하여 1919年 9月 2日 金起田을 黨首로 하여 創黨되었으나 크게 發展하지 못하다가 1945年 9月 14日 金秉淸을 委員長으로 再發足を 보게 되었다.

1946年 2月 1日에 北韓에서 蘇聯軍政의 認可를 받은 「天道教北朝鮮宗務院」이 設立되었는데, 共產治下의 온갖 迫害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6.25 動亂 이전까지 北韓에 99個의 道·郡 宗務院을 組織하게 되었다.

당시 「天道教北朝鮮宗務院」에서 중요한 役割을 맡고 있던 金達鉉을 소련 軍政當局은 懷柔하여 1946年 2月 8日 金達鉉을 黨首로 하는 「北朝鮮天道教靑友黨」을 創黨하게 되었다.

그후 1948年 3.1節 行事を 기하여 北韓 全域에 學國的인 反共義學를 일으키라는 서울에 있는 「天道教中央總本部」의 指示가 있었으나 金達鉉의 背信行爲로 수포로 돌아가고 天道教徒들만 심한 迫害를 받게 되었고 北韓의 天道教靑友黨은 점차 沒落해 갔다.

1950年 越北한 「南朝鮮靑友黨」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朝鮮天道教靑友黨」을 發足하고 다시 金達鉉이가 委員長을 맡았다.

그러나 6.25 動亂을 치르는 동안 朝鮮天道教靑友黨은 朝鮮民主黨과 같이 高位黨職者는 當局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일반 黨員이나 신도들은 反共隊列에 분연히 필기하였다. 이에 대한 北韓共產集團의 無慈悲한 보복은 오랫동안 계속 되었고 金達鉉도 숙청된 것은 물론이며 1959年 市·郡 이하의 組織은 解體해 버렸고 1960年 道黨까지 완전히 解體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1970年代 南北對話가 시작되자 갑자기 天道教靑友黨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1972年 8月 南北赤十字會談 本會議에 北韓側 諮問委員의 資格으로 참석한 강장수(天道教靑友黨의 副委

員長)는 天道敎의 敎理도 모르는 勞動黨員이었다.

1982年 8月 23日~24日 「天道敎靑友黨 第6次 大會」를 開催하였는데, 이 大會에서는 事業總和報告, 黨綱領·規約 改正과 黨中央指導機關選舉에 대한 論議가 있었고, 특히 「南朝鮮 및 海外天道敎徒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였다. 그리고 委員長 鄭信赫은 報告에서 “金日成을 民族의 最高領導者로, 人和團結의 中心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것을 일관된 원칙으로 삼아 왔다”라고 전제하고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委員長은 鄭信赫이 말하고 있고 副委員長은 최희준과 리득엽이 말하고 있다.

3. 社會團體

朝鮮勞動黨 規約 第56條에 의하면 「勤勞大衆들의 組織들은 광범한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革命鬪爭의 영광스런 전통을 계승하는 黨의 外廓組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광범한 大衆의 思想敎養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연결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충실한 補助者이다.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우리의 革命課業을 직접 계승하는 靑年들의 革命的 組織이며 黨의 戰鬪的 後備隊이다」라고 社會團體와 組織에 대한 定義를 規定해 놓았다.

또한 同 規約 第57條에는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同盟隊列을 강화하며 組

織生活과 思想教養事業을 강화하고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同盟員들을 黨의 두리에 결속시키며 3大革命붉은旗爭取運動과 社會主義競爭運動을 전개하며 同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적극 動員한다」라고 하여 社會團體와 組織에 대한 活動指針을 못박아 놓고 있다.

이와 같은 方針에 따라 組織되는 團體에 北韓의 住民들을 義務적으로 加入시키고 있으며, 組織內에서의 活動範圍도 엄격히 規制되고 있어서 自由世界에서의 社會團體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 許容되는 社會團體의 機能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統制機能이다. 北韓의 住民을 統制하기 위하여 團體別로 묶어두는 機能으로서 北韓의 住民들은 몇 개의 團體나 組織에 強制로 加入케 함으로써 相互監視와 統制의 機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② 教養機能이다. 北韓의 住民을 思想的으로 教養시키기 위한 教養機能으로서 社會團體 안에서 효과적으로 實踐하고 있다.
- ③ 宣傳機能이다. 對南·對美宣傳과 煽動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社會團體나 組織들을 總網羅하여 내세우고 있다.
- ④ 動員機能이다. 強制勞動에 몰아세우는 勞力動員의 機能과 戰時動員의 효율적인 機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團體와 組織들을 이용하고 있다.

⑤ 國際團體들과의 紐帶強化機能이다.

各國에 組織되어 있는 左傾團體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 地位向上을 꾀하는 한편 同調勢力을 구축하여 보려고 努力하고 있다.

이와 같은 機能의 필요에 따라 갑자기 組織되었다가 그 필요성이 점차 減退되면 潛跡해 버리는 것이 北韓의 社會團體들이다.

가. 勤勞大衆團體

(1) 朝鮮職業總同盟(職總)

1951年 1月 20日 北朝鮮職業同盟과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를 통합하여 「朝鮮職業總同盟」으로 發足했다.

10個의 産業別 機構¹²⁾로 組織된 職總의 盟員數는 1961年에 172萬名, 1968年에 200萬名, 1981年에 250萬名에 이르고 있다.

職總은 형식상으로는 勞動者와 事務員의 독자적인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組織된 團體인 것 같이 되었지만 사실은 勞動黨의 統制下에 隸屬되어 있는 御用團體이다. 職總의 主要幹部들은 勞動黨에서 指名되고¹³⁾ 職總會議에서 형식상 절차를 밟아서 選出하

註12) ① 朝鮮公務員職業同盟, ② 朝鮮水産勞動者職業同盟, ③ 朝鮮商業일꾼職業同盟, ④ 朝鮮教育文化保健일꾼職業同盟, ⑤ 朝鮮金屬機械工業勞動者職業同盟, ⑥ 朝鮮化學工業勞動者職業同盟, ⑦ 朝鮮建設林業勞動者職業同盟, ⑧ 朝鮮運輸港灣勞動者職業同盟, ⑨ 朝鮮鑛業·動力勞動者職業同盟, ⑩ 朝鮮輕工業勞動者職業同盟

13) 中央機關의 主要幹部는 물론 10個産別 職總의 幹部까지 모두 勞動黨에서 指名하여 勞動黨의 核心分子로 一色化한다.

고 있으며 事業計劃은 勞動黨의 指示대로 樹立되며 철저한 監督을 받게 된다.

「職總」의 規約에 의하면 「職總은 勞動黨의 擁護者이며 黨의 領導下에 모든 活動을 전개한다. 職總은 勞動階級の 統一과 團結을 強化하며 그들을 黨 周圍에 結束시켜 黨이 提起한 革命任務 遂行으로 組織動員된다. 職總內의 黨思想體系를 확립하며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를 비롯한 부르조아思想의 殘滓를 반대하며 투쟁한다. 管理의 學校, 經營의 學校, 共產主義의 學校로서 職總은 社會主義 建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黨의 指導下에 工場, 企業所에 生産協議會를 組織運營하며 相互義務를 실행하기 위해 團體協約을 締結한다」¹⁴⁾ 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職總」은 勞動者의 利益을 保護하는 團體가 아니라 勞動黨의 政策을 수행하는 外廓團體에 불과한 것이다.

組織現況으로는 金鳳柱가 委員長이고 副委員長은 김영남 外 6名이 맡고 있다. 傘下組織으로는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委員會, 初級團體(工場·企業所)委員會가 있다.

그동안 職總의 大會開催現況을 살펴 보면 <表 6>과 같다.

1981年 11月 27日~30日 「朝鮮職業總同盟 第6次 大會」를 開催했다.

이 大會에는 金日成·金正日을 비롯하여 黨·政高位幹部들과 各市道 職總代表들이 참석하여 金日成이 직접 演說을 하는 등, 요란했는데 본래 이 大會는 4年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10

註 14) 朝鮮職業總同盟 規約, 第1章 總則.

<表 6 >

職業總同盟 大會開催 現況

大會名	開催日 字	討議 및 決定事項
第1次大會	'45.11.30	北朝鮮職業總同盟 結成, 綱領 및 規約採擇
第2次大會	'47.12.20~22	行動綱領 및 規約 改正
第3次大會	'59.11.2~6	中央委와 財政檢査委 決算 報告
第4次大會	'68.12.16	中央委와 中央檢査委 事業總和, 中央指導機關 選舉
第5次大會	'71.12.10~15	中央委와 中央檢査委 事業總和, 中央指導機關 選舉

年만에 열렸던 것이다.

1982年 1月 31日~2月 1日 「朝鮮職業總同盟 中央委員會 第2次 全員會議」를 開催했다.

이 大會에서도 金日成이 行한 演說을 관철할 것에 대한 論議가 進行되었다. 그후 7月 6日~7日 「第3次 全員會議」, 9月 28日 「第4次 全員會議」가 계속 開催되었고 「金日成 敎示를 관철하기 위한 職總組織들의 課業에 대하여」에 대한 論議를 계속 했다.

1983年에도 職總의 상반기 定期會議인 「第5次 全員會議」를 4月 28日~29日, 「第6次 全員會議」를 8月 7日~8日 開催하고 「第2次 7個年計劃」의 早期達成을 강력히 추진할 것과 幹部 및 勤勞者들이 形式主義, 官僚主義, 無事安逸에 젖는 階段을 과감히 척결할 것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이와 같이 빈번한 全員會議의 召集은 최근 金日成의 敎示와 金正日이 指示한 方針을 깊이 解說·浸透시켜 부진했던 「第2次 7 個年計劃」의 完滿한 推進과 80年代 社會主義建設 「10大展望目標」의 達成에 勤勞者들의 勞力을 최대한 動員하려는 속셈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職總의 대의활동을 일층 強化하여 左傾國際勞動團體들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對南·對美宣傳과 煽動活動에 광분하고 있다.

(2) 朝鮮農業勤勞者同盟 (農勤盟)

1945年 12月 8日 農民들의 全國的 組織體인 「全國農民組合總聯盟」이 結成되었다. 그후 1951年 2月 11日 「朝鮮農民同盟」으로 다시 發足하였으며, 1964年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提議」¹⁵⁾가 발표되면서 「農業勤勞者同盟」으로 改稱·組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農勤盟의 規約을 보면 「農業勤勞者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 밑에 자기의 모든 活動을 조직 전개하는 黨의 믿음직한 補助者이며 黨과 우리나라 農業部門의 勤勞大衆을 연결시키는 引傳帶이다」라고 하여 勞動黨의 外廓團體로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충실히 遂行하는 團體임을 분명히 밝혔다.

農勤盟은 農村에서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推進과 思想敎養事業에 힘쓰도록 農民들을 監視하고 統制하고 있다.

註 15) 1964. 2.25, 勞動黨 第4期8次 全員會議에서 發表하였다.

組織構成員의 대상은 農民만을 加入시키는 것이 아니라 農業과 관련있는 部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加入시켰다. 즉, 協同農場員, 國營農場員, 國營牧場員,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職員, 灌溉管理所職員, 農機械製作所勤勞者, 農機具工場勤勞者, 資材供給所職員, 家畜衛生防疫所職員 및 事務員까지 총망라하였다. 創設當時는 盟員數가 230 萬名이던 것이 현재는 약 300 萬名에 이르고 있다.

1975年 3月 24日에 「朝鮮農業勤勞者同盟 創立 10周年 報告大會」가 開催되었는데, 委員長 金二勲은 “全盟員의 唯一思想化와 800萬噸 알곡高地 占領과 農業의 現代化·科學化를 이룩하자”고 報告하였다.

1976年 10月에는 勞動黨 第5期 12次 全員會議에서 農勤盟의 主力事業으로 「自然改造5大方針」¹⁶⁾이란 것을 發表하여 農民들의 勞動力을 더욱 苛酷하게 榨取하였다.

1983年 1月 27日~28日 「農勤盟 第2次 全員會議」가 開催되었는데, 이 會議에서 金正日 業績浮刻에 注力하였고 農勤盟을 통한 金正日 思想理論을 教養시키고 「1,500萬噸 알곡高地占領」을 위한 當面課業을 수행하기 위한 勞力動員에 관한 論議가 있었다.

이와 같이 金日成父子世襲體制의 鞏固化를 위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食糧不足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農民들을 動員하여 勞力을 榨取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註 16) ① 밭灌溉體制導入 ② 土地改良事業 ③ 다락밭改造 ④ 治山治水 ⑤ 干
涸地改墾

組織現況은 委員長은 金二勲, 副委員長은 이종원 外 3名이 맡고 있다.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를 두고 있다.

(3)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

1945年 11月 18日 「北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創立되어 1951年 1月에 「南北朝鮮女性同盟合同中央委員會」에서 「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統合·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女盟의 任務는 女性들 속에서 共產主義의 思想教養을 강화하며, 女性들의 政治意識과 文化水準을 더욱 높이고 社會主義 建設에서 勤勞女性들의 役割을 提高시키며, 金日成을 政治思想的으로 목숨바쳐 擁護하여 保衛하고 黨의 참다운 近衛隊, 決死隊가 되는 것이다.

1971年에 開催된 「女盟 第4次 大會」에서 發表한 女盟의 當面課業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分野에서 낡은 社會의 生活樣式을 없애고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確立하기 위해 鬪爭하고,
- ② 女性들 속에서 思想革命을 강화하여 女性들을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 事業을 가장 重要한 義務로 여겨야 하고,
- ③ 階級教養을 기본으로 하는 共產主義教養을 강화하고 千里馬運動을 적극 推進하며,
- ④ 後代들에 대한 教養強化로 어린이를 革命의 믿음직한 後備隊로 養成하고,
- ⑤ 革命的 警覺心을 더욱 높여 戰爭에 對處하기 위한 準備

事業을 강화하며,

⑥ 人民軍 援護事業을 강화한다.

北韓은 부족한 人力을 女性人力으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女性들에게도 技術을 습득케 하여 男子들이 담당했던 重工業分野나 高級技能分野까지 女性들을 投入시키고 있다. 그들은 「重勞動과 輕勞動의 차이를 좁히고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키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重勞動에 酷使시키고 있다.

1983年 6月 27日~29日 「女盟 第5次 大會」를 12年만에 개최하였다.

이 大會에는 黨·政幹部들과 在日本女盟祝賀團이 參加하여 이채로왔다. 委員長 金聖愛(金日成의 妻)는 다음과 같이 事業報告를 하였다.

「① 女盟員들을 教養하여 그들을 黨과 金日成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金日成 教示와 그 具現인 黨中央의 정책 관철에로 組織·動員하는 것이 女盟의 任務이다.

② 主體思想, 忠實性教養, 革命傳統教養, 階級教養, 共產主義 道德教養의 강화가 女盟의 當面課業이다.

③ 女盟은 對外活動을 적극 벌여 革命的 유리한 高地를 마련하며 世界革命的 發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北韓은 女盟活動의 活性化를 통하여 女性勞力動員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對外活動을 일층 강화하여 左傾國際女性團體들과 유대를 더욱 두껍게 하여 對南·對美宣傳에 活用하고 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은 金聖愛, 副委員長은 강점숙 外 7名이 맡고

있다.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가 있고 현재 盟員數는 270 萬名이다.

(4)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社勞青)

1946年 1月 17日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이 發足되었다가 그후 1951年 1月 17日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으로 改稱되었다.

社勞青의 目的은 「勞動黨의 領導 밑에北韓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保障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실현하고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기 위해 鬭爭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社勞青의 課業은 다음과 같다.

- ① 青年들을 黨의 思想體系로 武裝시키고 黨을 목숨으로 지키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貫徹하고,
- ② 自力更生의 革命的 기치를 높이 들고 千里馬運動의 大高潮를 계속 堅持하여 技術·文化·思想革命을 촉진시켜 社會主義·共產主義를 더 잘, 더 빨리 建設키 위해 鬭爭하며,
- ③ 青年들 속에 學習氣風을 세우고 그들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과 黨政策, 金日成勞作을 研究, 體得케 하여 共產主義 思想과 黨의 革命傳統으로 무장시켜 階級的 원수를 미워하고 反帝, 地主·資本家制度를 反對하여 革命的 終국적 勝利를 위해 鬭爭하고,
- ④ 南韓을 美帝와 反動政治에서 解放하고 統一을 위해 鬭爭

하고,

- ⑤ 南韓의 勞動青年, 農民青年, 青年學生들과 各界各層 青年과의 統一戰線을 강화하고,
- ⑥ 黨의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 青年들을 共產主義적으로 教養·改造하여 黨周圍에 묶어 세운다.

이와 같은 目的과 課業을 부여받은 社勞靑은 소련의 「青年同盟」이나 中共의 「共產青年團」과 같이 共產黨의 指導下에서 行動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擁護하며 人民大衆에 浸透시키는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며 黨의 後備隊로서 軍隊, 工場, 企業所 및 農漁村에서 黨의 支柱役割을 담당하여 豫備黨員을 양성하고 盟員들을 黨에 입당할 수 있도록 教養하며 勞力動員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1981年 5月 6日~7日 「社勞靑中央委員會 第23次 全員會議」를 開催하였다.

이 大會에서 委員長 李榮洙가 報告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大安의 事業體系 관철을 위한 組織 政治事業의 強化 ② 工場·企業所 社勞靑 組織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의 提高必要 ③ 社勞靑 일꾼들의 經濟實務 水準提高와 事業方法의 改善 ④ 3大革命붉은旗爭取運動과 숨은 英雄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운동에서의 社勞靑 組織들의 역할 強調」등이다.

그동안 社勞靑의 大會開催現況을 살펴 보면 <表 7>과 같다.

1981年 10月 20日~24日 「社勞靑 第7次 大會」에는 金日

<表 7 >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大會 開催現況

大會名	開催日字	討議 및 決定事項
第1次大會	'46. 1.16~17	北朝鮮民主青年同盟 結成, 綱領 및 規約 採擇
第2次大會	'46. 9.27~30	創立大會 以後의 活動總和, 規約改正
第3次大會	'48.11.11~14	青少年 思想教養事業 強化對策
第4次大會	'56.11. 3~ 8	民青의 組織政治事業 強化對策
第5次大會	'64. 5.12~16	社勞青規約 採擇
第6次大會	'71. 6.21~25	社勞青 中央委와 中央檢査委 事業總和, 中央指導機關 選舉

성과 金正日을 비롯하여 黨·政幹部들과 130 個國의 184 個 代表團이 參加하였다.¹⁷⁾

이 大會에서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수법으로 각종 呼訴文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이례적인 것은 「南北 및 海外同胞 青年學生들로 구성되는 『統一促進青年會議』를 召集하자」는 提議를 내놓은 점이다. 10 年만에 개최된 이 大會의 特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第6次 黨大會時에 서열 4 位로 公式發表된 金正일이 1 年만에 서열 2 位로 格上되어 權力承繼地位를 分明히 하

註 17) 世界各國에서 130 개국 184 개 團體가 參加했다고 北韓은 宣傳하고 있으나 確認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勞動者代表團」이 參加했다고 거짓 宣傳하고 있기 때문이다.

였고,

- ② 盟員數가 第6次 大會時(1971年)의 270萬名에서 400萬名으로 急增하여 社勞靑 組織이 北韓內에서 最大의 社會團體로 擴大되었고,
- ③ 同 大會를 國際的 規模로 誇示하기 위하여 130個國에서 184個의 代表團을 招請하였고,
- ④ 委員長 李榮洙는 報告를 통하여 社勞靑의 큰 事業成果는 “靑少年들이 金日成에 충실하고 代를 이어 革命을 계속하여 나아갈 主體偉業의 繼承자로 키운 것”이라고 讚揚하고 “靑少年들이 南朝鮮 靑年學生들과 人民들의 正義로운 鬭爭을 支持聲援하는 것은 民族의 任務”라고 強調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行事は 金日成 父子의 世襲體制 基盤을 다지고 權力承繼의 前衛組織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진한 經濟開發의 打開을 위하여 靑少年들을 勞力動員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다.

1983年 6月 6日~7日 「社勞靑 第4次 全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會議의 議題로 「黨의 領導를 받들어 나가는 事業을 더욱 深化시키기 위한 社勞靑의 課業」을 내걸었다.

委員長 李榮洙는 報告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을 밝혔다.

「① 金正日은 社勞靑 組織들의 機能과 役割을 더욱 높여주고 事業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온갖 條件을 다 만들어 주었다.

② 社勞青 組織들은 靑少年들 속에서 黨의 方針과 결정 지시를 至上命令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끝까지 貫徹해 나가도록 教養事業을 強化해야 한다.]

組織現況으로 委員長은 李榮洙, 副委員長은 김창룡 外 6名이 말고 있다.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가 있다.

盟員加入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靑年·學生들이 의무적으로 加入되며 현재 약 400萬名の 盟員이 있다.

그리고 少年團¹⁸⁾을 傘下에 組織하고 있는데, 어린 少年들까지 組織體에 묶어 두어 革命化·勞動階級化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나. 統一推進黨前衛團體

(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祖戰)

共產主義者들을 中心으로 1946年 2月 15日에 結成된 「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과 1946年 7月 22日에 結成된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이 母體가 되어 1949年 6月 27日 南北民戰連席會議에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結成하였는데, 現在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勞動黨을 비롯하여 友黨 및 社會團體를 網羅하고 있다.

註 18) 少年團은 만 8세부터 13세까지 少年들이 加入되며, 현재의 團員數는 약 350萬名에 이른다. 그들은 「共產主義 後備隊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準備하자!」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現在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 網羅된 團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朝鮮勞動黨
- ② 朝鮮社會民主黨
- ③ 朝鮮天道教靑友黨
- ④ 祖國平和統一委員會
- ⑤ 朝鮮職業總同盟
- ⑥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 ⑦ 朝鮮農業勤勞者同盟
- ⑧ 朝鮮民主女性同盟
- ⑨ 朝鮮文學藝術總同盟
- ⑩ 朝鮮記者同盟
- ⑪ 朝鮮工業技術總同盟
- ⑫ 朝鮮基督教徒聯盟
- ⑬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
- ⑭ 朝鮮佛教徒聯盟
- ⑮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 ⑯ 朝鮮民主法律家協會
- ⑰ 朝鮮學生委員會
- ⑱ 世界人民들과 連帶性 朝鮮委員會
- ⑲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 ⑳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 ㉑ 朝鮮赤十字會
- ㉒ 朝鮮올림픽委員會

略稱 「祖國戰線」이라 불리우는 이 團體의 任務는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貫徹하며 統一을 위하여 적극 鬭爭한다」고 되어 있다. 즉, 祖國戰線은 對南 僞裝平和統一攻勢 및 南韓의 赤化與件 造成을 위한 役割을 담당하는 勞動黨의 前衛團體이다.

이러한 事實은 北韓이 祖國戰線을 내세워 6.25 南侵이 있기 19 日前인 1950年 5月 7日 “南北韓 最高立法機關을 設立하기 위한 總選舉를 실시하자” 느니, 平和統一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南北諸政黨·社會團體協議會」를 열자” 느니, 하는 提議를 하여 南侵 計劃을 僞裝하려고 하였던 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후, 北韓은 機會있을 때마다 祖國戰線을 내세워 僞裝平和統一 方案을 계속하여 提議해 왔다.

1973年 7月 24日 祖國戰線은 民主共和黨, 新民黨, 統一黨과 소 위 있지도 않은 統革黨까지 포함시켜 “南北韓 政黨·社會團體와 海外僑胞團體를 포함한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자”고 提議해 오 기도 하였다.

1979年 1月 19日에는 祖國戰線의 聲明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提議해 오기도 하였다.

- ① 7.4 共同聲明精神의 再認識
- ② 南北韓 相互 誹謗放送의 中止
- ③ 休戰線上에서의 軍事活動의 中止
- ④ 全民族大會 召集

1980年代에 들어서자 다시 僞裝平和統一術策을 들고 나와 1981年 8月 6日 聯合聲明을 발표하여 「高麗聯邦制」에 대하여 論議하

기 위한 「民族統一促進大會」를 開催하자고 提議해 왔다.

1982年 1月 22日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闡明되자 1月 28日 祖國戰線에서 반대하는 聲明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83年 1月 18日 다시 聯合聲明을 발표하여 「駐韓美軍撤收」에 관한 論議를 하기 위한 「南北韓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를 召集하자고 提議해 왔다.

組織現況은 林春秋 外 7名으로 構成된 議長團과 77名으로 構成된 中央委員會가 있고, 그 밑에 常任委員會가 있으며 直屬機構로 書記局과 祖國戰線社가 있다.

(2)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平)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1961年 5月 13日 結成되었는데, 이것은 4.19直後 당시에 제기되었던 「南北協商論」등에 呼應하기 위하여 北韓에서 急造된 勞動黨의 前衛團體로 登場된 僞裝平和統一政策을 宣傳하기 위한 機構이다.

「祖平」의 任務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朝鮮人民 자신의 손으로 여하한 外國의 간섭도 없이 民主主義的 基礎위에 자유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는 方法으로 성취할 朝鮮勞動黨의 시종일관한 方案을 支持한다」고 하여 분명히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1980年 1月에는 「祖平」委員長 金一과 總理 李鍾玉이 우리나라 申鉉鎬 國務總理를 비롯한 各界人士 12人에게 南北間 接觸을 하자는 提議를 해오기도 했으며 機會있을 때마다 僞裝平和統一方案을

가지고 提議해 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10.26 事態 以後, 政局이 混亂했던 時期였으므로 좋은 기회라고 判斷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1年 5月 12日에는 平壤에서 「祖國平和統一委員會結成 20 週紀念報告會」를 開催하였다.

이 報告會는 黨·政高位幹部들이 대거 參席하는데, 그 報告 內容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을 위한 「民族大統一戰線構成」과 「駐韓美軍撤收」 등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이 報告會에서 美國과 직접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하였던 것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特記할 것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하여 1982年 1月 26日 「祖平」委員長 金一의 名義로 公式反應을 보였다는 점이다.

組織現況으로는 委員長 金一, 副委員長은 洪起文 外 10名이 말고 있다.

(3)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1956年 7月 2日 創立된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는 6.25 당시 남북인사들¹⁹⁾로 僞裝平和統一攻勢를 위하여 組織된 團體이다.

1958年 後半에 拉北人士들에 대한 大量肅清으로 유명무실한 團體로 轉落되었다.

註 19) 安在鴻, 趙素昂, 尹琦燮, 吳夏英 등, 남북인사들을 發起人으로서 하여 組織하였다.

1981年 7월에 갑자기 처음으로 開催된 「結成報告大會」에는 金日成이가 祝賀便紙까지 보내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同年 8月 15日을 期하여 南韓의 政黨 및 各界人士들에게 便紙를 대대적으로 보내는 등, 對南宣傳攻勢에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組織現況으로는 委員長은 趙憲泳, 常任委員은 박보령 外 5名으로 構成되었다.

(4)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1949年 3月 24日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가 創立되었다. 이 委員會는 世界平和와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를 표방하여 組織된 勞動黨의 御用團體이다.

이 委員會의 任務는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平和標榜團體들과의 連繫下에 反韓·反美 宣傳活動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이 鄭斗煥, 副委員長은 김주영 外 9名이 맡고 있다.

(5) 朝鮮赤十字會

1946年 10月 18日 「北朝鮮赤十字會」로 創設되었다가 1948년에 「朝鮮赤十字會」로 改稱되었다.

同 會의 規約은 「朝鮮赤十字會는 人民들의 大衆의 社會團體로서 부강한 民主主義的 朝鮮獨立國家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努力하고 國際赤十字條約에 기준하여 人民들의 保健·文化生活의 향상과 戰爭 및 災難時의 被害者 救濟事業을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鬭爭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人民들에 대한 診療事業과 防疫事業 등의 人道的 事業에는 等한하고 본연의 任務와는 달리 勞動黨의 侍女노릇에만 열중하는 御用 團體로 轉落해 버렸다.

1971年 8月 1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 離散家族찾기運動」을 구체적으로 協議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를 提議하자, 8月 14日 北韓의 朝鮮赤十字會가 同意해옴으로써 역사적인 南北赤十字會談이 열리게 되었다.

南北雙方은 豫備會談, 全體會議 25回, 實務會談 16回를 열어 諸般問題가 순조롭게 討議, 決定되는듯 하였으나 北韓側은 갑자기 “南韓의 法律的 社會的 障礙要素를 제거하고 條件과 環境을 改善하라”는 內政干涉的인 要求를 提示함으로써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다가 1973年 8月 28日 「南北調節委員會」北韓側代表 金英柱의 一方的인 宣言에 의하여 對話와 接觸이 中斷되고 말았다.

組織現況으로는 委員長은 孫成弼, 副委員長은 박영시 外 5名이 말고 있다.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가 있다.

다. 文化·藝體能團體

(1) 朝鮮文學藝術總同盟(文藝總)

1946年 3月 25日 「北朝鮮文學藝術家同盟」으로 創設되었다가 1951年 3月 10日 「朝鮮文學藝術總同盟」으로 改稱되었다.

共產主義의 文學·藝術政策은 社會主義的 實寫主義에 입각한 創

作方法이 그 基調를 이루고 있으며, 社會主義的인 내용과 형식의 채택은 人民性, 階級性, 黨性을 강조하여 黨의 政策具現에 관한 宣傳과 教養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純粹藝術性은 사실상 抹殺되고 있다.

北韓의 文學·藝術活動도 이러한 政策에 따라 黨政策具現, 宣傳讚揚, 金日成偶像化,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政治思想教育, 勞力動員, 勞動意慾提高 등, 政治道具로 利用하고 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 李箕永, 副委員長은 申鎮順 外 3名이 맡고 있다.

傘下組織으로 作家同盟(千世鳳), 音樂家同盟(李冕相), 美術家同盟(鄭寬徹), 寫眞家同盟(高龍鎮), 舞踊家同盟(金在興), 演劇人同盟(李丹), 映畫人同盟(李鎮淳) 등이 있다.

(2) 朝鮮記者同盟

1946年 10月 12日 創立된 「朝鮮記者同盟」은 各 新聞社, 放送委員會, 雜誌社 從事者들의 組織體로서 勞動黨의 宣傳·煽動活動에 이용되는 道具에 불과하다.

1981年 10月 12日 平壤의 모란봉藝術劇場에서 「朝鮮記者同盟 創立 35돌記念報告會」가 있었는데, 委員長 金基南은 報告를 통해 金日成 父子의 業績을 讚揚하면서 “朝鮮記者同盟은 出版·報道活動에서 主體의 원칙과 速度戰을 벌일 데 대한 원칙을 貫徹했으며,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에서 집단적 組織宣傳團體로서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했다”고 主張하였다.

同盟의 當面課題로 “同盟의 전투적 機能과 役割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全體記者·編輯員들이 10大展望目標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鬪爭에 모든 지혜와 能力을 바쳐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와 같이 言論을 최대한 이용하여 勞力動員과 勞動力 擄取를 위해 拍車를 가하고 한편으로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은 金基南, 副委員長은 박재우 外 7名이 맡고 있다.

(3) 朝鮮體育指導委員會

1946年 5月 8日 「北朝鮮體育總聯盟」이 結成되었고, 그 뒤에 「朝鮮體育指導委員會」로 改稱되었다. 이는 體育活動을 통하여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하는 御用團體로서, 이른바 國防體育을 통하여 赤化野慾을 달성하기 위한 戰鬪力 養成에 注力하면서 好戰的인 분위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機會있을 때마다 體育關係 對南提議 및 聲明을 내는 등, 政治的 目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1954年 6月 23日 체계적인 體育活動의 확대를 위해 內閣直屬機關으로 「體育指導委員會」를 두고 各道體育指導處와 各種 體育團을 두었고 市(區域)·郡에는 體育俱樂部를 組織하였다.

1969年 11月 3日 거행된 「全國體育人大會」에서 內閣直屬機關인 體育指導委員會를 內閣으로부터 분리 獨立시켰다.

組織現況으로 委員長은 金裕順, 副委員長은 김득준 外 7名이 맡고 있다.

對外事務處, 技術指導處, 國防體育處, 群衆體育處 등 4 個部處가 있고 體育科學研究所도 있다.

그리고 傘下組織으로 21 個의 競技團體가 있고 各道(直轄市)體育指導處와 市(區域)·郡體育俱樂部가 있다.

(4) 朝鮮올림픽委員會

「朝鮮올림픽委員會」는 體育을 통한 外交活動의 일익을 담당하며, 各種 國際會議에 代表를 파견하여 共產圈 國家들과 連繫下에 韓國의 孤立化를 위한 對南謀略 宣傳活動에 注力하는 御用團體이다.

1962年 7月 28日에는 東京올림픽大會²⁰⁾에 “南北韓混成팀을 파견하자”고 일방적으로 提議하여 宣傳效果를 노려 떠들고 나왔던 일도 있었고, 1962年 2月 1日 인스브르크冬季올림픽大會에서는 呼稱問題에 불만을 품고 聲明戰을 벌인 일도 있으며, 1964年 東京올림픽大會에서 생트집을 잡다가 여의치 않으므로 撤收해 버린 추태까지 恣行하였다.

1963年 10月 19日에야 비로소 I.O.C.에 加入하게 되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金裕順, 副委員長은 리창선, 孫吉川 등이 맡고 있다.

註 20) 東京올림픽大會는 1964年 10月 2日에 開催되었는데, 北韓은 이에 앞서 提議하였다.

라. 宗教團體

(1) 朝鮮基督教徒聯盟

1946年 11月 18日 「北朝鮮基督教聯盟」이 結成되었다가 1947年 2月 24日 「基督教民主聯盟」으로 改稱되고 여러 차례 改稱과 潛跡의 과정을 거쳐 다시 1974年에 「朝鮮基督教徒聯盟 中央委員會」가 出現하였다.

1972年 이후 維新體制가 일부 宗教人의 反維新活動으로 批判을 받게 되자, 北韓은 갑자기 宗教團體를 내세워 非難聲明을 發表하고 世界各國의 宗教團體에까지 呼訴文을 보내는 등 宣傳活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北韓에는 基督教徒가 있는 것처럼 世界의 耳目을 糊塗하기 위하여 1974年 8月에 「世界基督教協議會(W.C.C.)」에 加入申請을 提出했었다. 그러나 同 協議會에서는 現在 北韓의 信者數, 聖職者數, 教會數 등을 調查하기 위하여 北韓에 現地調查團을 파견하겠다고 하자 스스로 撤回함으로써 北韓에 宗教가 없다는 것을 是認한 結果가 되었다.

1975年 1月 印度의 쿿따얌에서 열린 「아시아基督教平和會議」²¹⁾에 代表團을 파견하였고, 1976年 11月에는 체코의 부르노에서 열린 「基督教平和會議」²²⁾ 政治·經濟討論會」에도 參加하

註 21) 이 會議은 소련에 의해 組織된 아시아·東歐地域의 共產國家 中心의 모임이며, 參加者들은 左翼基督教人士들로 되어 있다.

22) 이 會議은 1957年 체코에서 創立된 左翼國際宗教團體로써, 蘇聯의 財政支援으로 政治的 宣傳活動을 일삼는 會議이다.

여 「朝鮮에 관한 決議文」을 採擇하는 등, 宗教活動을 벗어난 政治活動으로 國際宗教團體와 連帶性的 強化를 試圖하여 對南·對美 宣傳에 利用하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81年 11月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北과 海外同胞基督者間 統一對話」²³⁾를 통하여 「高麗聯邦制」의 實現을 支持한다는 聲明을 發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모임은 宗教를 빙자한 政治活動으로 모두가 勞動黨의 지령에 따라 離合集散하는 꼭둑각시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2) 朝鮮佛教徒聯盟

1945年 11月 26日 「北朝鮮佛教徒聯盟」이 結成되었다가 1948年에 「北朝鮮佛教徒聯合會」로 改稱되었다.

그 後, 1950年부터는 潛跡했다가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1972年에 갑자기 「朝鮮佛教徒聯盟 中央委員會」가 出現하게 되었다.

同 聯盟의 綱領에는 「政府政綱을 받들고 이것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鬪爭하며 …… 人民軍隊에 대하여 積極援助하고 …… 佛教徒들에게 勤勞精神을 昂揚시켜 ……」云云하여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하는 御用團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北韓은 오랫동안 宗教行事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983年 4月 21日부터 22日까지 平壤에서 「佛教徒聯盟 第8次大會」

註 23) 이 모임은 「祖國統一海外基督者會」를 앞세워 許貞淑, 全今喆 등 基督教徒가 아닌 黨·政高位幹部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召集한 모임이며, 反韓人士인 崔德新, 崔泓熙를 내세워 宣傳效果를 노리는 政治宣傳場이었던 것이다.

를 開催하였다.

同大會에는 僞裝宗教團體의 高位幹部들과 朝鮮佛教徒聯盟 各級 組織들에서 選出된 代表들이 參席하였다.

이大會에서 委員長 박태호는 事業總和報告를 통하여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과 祖國統一 偉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聯盟事業의 強化·發展이 當面課業이다”라고 力說하였다.

그리고 「南朝鮮과 海外佛教徒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였다.

또한 各種 國際佛教會議²⁴⁾에 代表團을 파견하여 世界各國의 佛教團體들과 連帶성을 強化하려고 온갖 努力을 다하고 있다.

이大會의 特徵은 그동안 非公開裡에 開催되었던 1~7次大會와는 달리 公開行事였는데, 그러한 理由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北韓에서 自由로운 宗教活動이 保障되고 있는 듯이 僞裝·宣傳하여 韓國佛教團體와 統一戰線의 形成을 획책해 보려는 意圖가 있었을 것이며,
- ②마치 佛教의 教理가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同一한 것처럼 強辯하면서 이를 御用宗教化하여 金日成 偶像化에 活用하고,
- ③이러한 行事を 통하여 左傾宗教團體 및 反韓僑胞들과의 連

註24) ① 1974. 11. 第4次 아시아佛教徒平和會議(인도: 뉴델리)
 ② 1976. 7. 第4次 아시아佛教徒平和會議(日本: 東京)
 ③ 1982. 8. 第6次 아시아佛教徒平和會議(蒙古: 울란바토르)

緊下에 對南·對美 謀略宣傳과 함께 海外僑胞社會에 浸透하기 위한 수단으로 評價된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박태호, 副委員長은 홍두화가 맡고 있다.

(3)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

1946年 2月 1日 「天道教北朝鮮宗務院」으로 創設되었다가 그 후 有名無實한 團體로 潛跡했으나 갑자기 1974年 2月 15日 出現하여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라는 이름으로 「南朝鮮宗敎人과 海外僑胞宗敎團體 및 世界宗敎團體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여, 우리나라의 維新憲法과 民靑學聯事件 등에 관한 非難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御用宗敎團體는 名稱만 存在하는 團體로서 필요시에 雨後竹筍처럼 등장했다가 潛跡해 버리는 時限的인 宣傳道具에 불과한 것이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鄭信赫, 副委員長은 김철민이 맡고 있다.

마. 學術團體

(1) 朝鮮民主科學者協會

「朝鮮民主科學者協會」는 1956年 3月 18日에 發足되었다.

이 協會는 科學者·技術者들이 加入하여 勞動黨의 科學政策을 수행하는 前衛隊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各種 國際科學者會議에 代表團을 파견하여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科學·技術의 成果를 海外에 宣傳하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南韓의 科學者 및 技術者를 대상으로 各種 聲明이나 呼
訴文을 보내는 등, 對南宣傳에 注力하고 있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白南雲, 副委員長은 洪起文이 맡고 있다.

(2) 朝鮮民主法律家協會

1954年 11月 30日 「朝鮮民主法律家協會」가 創立되었다.

이 協會는 勞動黨의 御用法律家들의 組織體로서 勞動黨의 權力
을 保衛하기 위하여 組織된 團體이다.

主要活動은 各種 聲明이나 談話를 통한 對南宣傳을 하는 일과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法律家 및 法律家團體들과 連繫下에 反韓
·反美 謀略宣傳 등에 注力하는 것이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崔民信, 副委員長은 김철운이가 맡고 있다.

(3) 朝鮮學生委員會

1960年 5月 20日 「朝鮮學生委員會」가 創立되었는데, 이것은
韓國에서 4.19以後 극도로 混亂한 時期에 서울大學生들이「南北
學生會談을 開催하자」는 提議에 呼應하기 위하여 急造된 御用團
體이다.

이 委員會가 하는 일은 各種 國際學生會議에 대표단을 파견하
여 世界各國의 左翼系 學生들과 連繫下에 反韓·反美活動을 展開
하는 것이 주된 任務이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金蒼龍, 副委員長은 최화식 外 5名이 맡고
있다.

바. 國際宣傳團體

(1)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1956年 5月 31日에 創立된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는 1955年 「반둥會議」以後, 中立國내지는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新生國家에로 外交關係를 확대하기 위해 接近을 試圖하려는 목적으로 設立된 團體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外政策 變化는 오랫동안 中蘇偏向外交의 方向에서 탈피하여 1966年 소위 自主路線을 표방하면서 조심스럽게 新生國家에 接近해 가는 外交政策路線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團體는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反韓·反美 謀略宣傳에 앞장서서 활약하는 勞動黨의 전형적인 御用 團體이다.

組織現況으로는 委員長에 金鳳柱, 副委員長은 이호남 外 3名이 맡고 있다.

(2)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北韓은 世界平和와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하는 世界 人民들과의 連帶性을 강화한다는 美名下에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라는 勞動黨의 御用團體를 만들었다.

이 團體는 주된 活動이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기 위하여 海外的 連帶性 관련기관에 反韓·反美 謀略宣傳을 하는 일이다.

組織現況은 委員長에 金寬燮, 副委員長은 金용순 外 5名이 맡고 있다.

(3)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

이協會는 1956年 4月 民間水準의 親善 및 文化交流를 앞세우고 中立國을 비롯한 西方諸國에 浸透하여 對外活動을 전개할 목적으로 創立되었다.

이協會도 1955年 「반동會議」를 계기로 北韓이 中蘇일변도 外交에서 中立國·新生國을 겨냥한 多邊外交로 轉換됨에 따라 急造된 團體이다.

이協會는 勞動黨 國際部 및 政務院 外交部, 文化藝術部 등과 긴밀한 連繫를 가지는 部處級 機關으로 주로 民間外交活動을 主導하고 있다.

傘下機構로는 海外各國에 組織되어 있는 各種親善協會, 「金日成 思想研究小組」, 「朝鮮支持連帶性委員會」 등이 있다.

組織現況으로는 委員長에 金寬燮, 副委員長은 김태희 外 10名이 맡고 있다.

4. 結 論

共產主義 國家의 政治體制는 共產黨에 의한 1黨獨裁이다. 共產黨은 프롤레타리아階級の 革命的 參謀部이며 政治的 司令塔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權力構造이며 統治機構이다.

共產黨의 任務는 「人民의 地上樂園인 共產主義社會로 建設하기 위해 全體 人民을 勝利에로 組織動員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共產黨은 國家는 물론 모든 人民들의 장래 運命까지도 책

임을 지고 있으므로 階級的 敵에 대해서는 철저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黨의 모든 政策은 錯誤가 있을 수 없으며 黨의 命令은 모든 部門에서 生死를 左右하는 絶對性和 無條件性的 性格을 띤다. 그러므로 黨의 最高指導者는 人民앞에 君臨해야 하며 그의 命令은 神聖不可侵의 威力을 發揮하게 된다. 즉 1黨制인 共產體制에서는 黨은 政黨이 아니라 하나의 統治機構인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勞動黨은 하나의 政黨으로서 大衆을 基盤으로 하여 執權을 위해 鬪爭한 黨이 아니라 性格上「위로부터 共產主義를 實現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黨」이며, 「支配하기 위한 黨」, 「執權하기 위한 黨」으로 組織된 共產黨이다. 그렇기 때문에 執權을 위해 鬪爭한 일도 없고, 다른 政黨들과의 政策對決이나 得票競爭을 위한 選舉戰도 치른 일이 없이 1黨獨裁로서 君臨하는 勞動黨天下를 오늘에 이르도록 유지하면서 金日成의 私黨으로 굳혀오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의 北韓 勞動黨은 「金日成主體思想」을 統治理念으로 내세우면서 權力構造는 族閥體制를 토대로 「金日成父子體制」가 되어 사실상 金日成의 私黨的 政黨으로 轉落했으며 세계 어느 共產黨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特性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 勞動黨 外 다른 政黨을 論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은 外形만 갖추고 있는 名目上的 黨을 存立케 함으로써 北韓에도 마치 複數政黨이 存在하는 것처럼 僞裝하고 한편으로는 對南提議가 있을 때나 反韓·反美宣傳煽動에 利用하기 위

한 때에만 登場시키는 허수아비黨으로 下部組織까지 解體해 버리고 이름만 남아 있는 「朝鮮社會民主黨」과 「朝鮮天道教靑友黨」이 있을 뿐이다.

北韓의 社會團體 現況을 살펴 보아도 마찬가지다.北韓에서의 社會團體들은 勞動黨의 完璧한 統制下에 묶여 있는 組織들로서 大衆組織이라기보다는 「黨이 大衆을 統治하기 위한 하나의 操作機構」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社會團體의 組織들은 「黨과 大衆을 連結시키는 引傳帶」라는 말이 표현해 주듯이 獨立性이나 中立性이 전혀 認定되지 않는 黨의 前衛組織으로서 「黨의 政治的 意志에 따라 결정된 政策을 大衆에게 浸透시켜 劃一的인 政治社會에 統合시키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團體들을 多元的 社會團體들이 自律的으로 組織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社會團體들과 같은 次元의 視覺에서 보아서는 안된다.北韓에서는 社會團體들이 自律的인 社會壓力集團으로서 政策決定 過程에 上向的으로 意思가 投射되는 것이 아니라 黨의 前衛組織으로 黨의 路線과 政策을 貫徹하기 위한 組織體들이다.

北韓의 社會團體들은 이와 같은 특수한 性格을 갖고 있으며 勞動黨의 충실한 補助者로서 住民들의 統制機能과 教養機能, 宣傳機能, 動員機能, 그리고 左傾 國際團體들과의 紐帶強化 機能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必要에 따라 各種 社會團體의 行事を 開催하고 報告會의 形式을 빌려 金日成父子의 業績을 讚揚하면서 의례히 「南

朝鮮 人民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는가 하면 反韓·反美 宣傳에 惡意에 찬 謀略·誹謗만을 일삼아 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政局이 不安하거나 騷擾가 잦은 時期를 택하여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를 召集하자느니 聲明, 談話, 呼訴文 심지어 便紙攻勢까지 퍼면서 宣傳·煽動에 혈안이 되어 政黨·社會團體의 이름을 있는 대로 들고 나와 표독스러운 誹謗과 非難을 일삼아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賢명한 判斷力을 가지고 北韓의 政黨·社會團體現況을 옳게 把握하여 그들의 虛僞와 欺瞞에 찬 對南提議에 眩惑되지 말아야 하겠다.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1984年 1月 25日 印刷

1984年 1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